

- **주요 뉴스:** 미국 주택시장 부진에 경기침체 우려 심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대응도 강화
 -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정점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중국 인민은행 4/4분기 고용 및 소득기대, 모두 집계 시작된 이후 최저
 - 일본은행, 수익률곡선제어(YCC) 조정은 정책기조 전환이 아닌 경기부양이 목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악화
주가 하락[-1.2%],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 증가하며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국제금리 상승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3%, 0.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물가상승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내년 경기침체 예상 등으로 2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74.2원, +7.2원) 0.6% 상승, 한국 CDS 상승

		12/28일	12/27일	전일대비			12/28일	12/2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783.2	3,829.3	-1.20%	국제 금리 10y	미국	3.88%	3.84%	4bp
	유럽	427.46	428.00	-0.13%		독일	2.50%	2.52%	-2bp
	중국	3,087.4	3,095.6	-0.26%		영국	3.66%	휴장	2bp
	일본	26,341	26,448	-0.41%	CDS 5y	한국	53bp	52bp	1bp
	한국	2,280.5	2,332.8	-2.24%		중국	75bp	74bp	1bp
	달러지수	104.52	104.18	0.32%	위험 지표	EMBI+	-	368	-
환율	유로화	1.0612	1.0640	-0.26%		VIX	22.14	21.65	2.26%
	엔화	134.47	133.49	-0.73%		WTI유	78.96	79.53	-0.72%
	위안화	6.9819	6.9601	-0.31%	원자재	구리	383.2	383.4	-0.04%
	원화	1,267.0	1,271.4	0.35%		금	1,804.4	1,813.7	-0.5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택시장 부진에 경기침체 우려 심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대응도 강화

- 미국 11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각각 4.0%, 37.8% 감소. 특히 잠정주택판매는 '00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준.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의 원인으로 높은 수준의 모기지금리 등을 지목
- 잠정주택판매의 감소는 향후 전체 주택시장의 둔화를 예고하며, 역사적으로 다른 산업들과의 연관성이 큰 주택경기의 부진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NAR의 Lawrence Yoon).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기연착륙 기대가 있으나 연준의 긴축의지 등으로 실제 가능 여부는 불확실(Invesco의 Brian Levitt)
- 한편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에서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에 더해 일본, 인도, 대만, 이탈리아 등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방문객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방침
-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은 상황. 일부에서는 수요 확대에 의한 경제성장 촉진을 기대.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 원자재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증가, 주요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 등을 거론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정점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심쿠스 총재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가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정점을 지나게 될 때 에너지와 최종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 압력을 우려한다고 발언. 라트비아 중앙은행의 카자크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구조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 FT 설문조사, 내년 에너지 부족으로 유로존 경기침체 예상

- 이코노미스트 대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0%의 응답자들이 유로존에서 이미 경기침체가 진행 중이거나 내년 역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 가스가격은 여전히 핵심 위험요인이며 추가적인 공급 부족, 추운 날씨 등이 국가 간 긴장 고조,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이어질 우려(Morgan Stanley의 Chiara Zangarelli)

■ 중국 인민은행 4/4분기 고용 및 소득기대, 모두 집계 시작된 이후 최저

- 4/4분기 고용심리지수(가계의 일자리 전망)와 소득신뢰지수(향후 3개월 예상 소득)는 33.1, 44.4를 기록하여 각각 '10년, '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2만명의 예금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가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

■ 중국 증시, 금년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17년 이후 최소. 코로나 팬데믹 등이 영향

- 금년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순매수는 870억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20% 수준에 불과. 미국의 통화긴축과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등이 원인.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는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평가

■ 일본은행, 수익률곡선제어(YCC) 조정은 정책기조 전환이 아닌 경기부양이 목적

-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의 요약본에 따르면, 위원들은 국채시장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 특히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폭 확대는 채권시장 개선을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 한편 2%의 물가상승률 목표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차기 일본은행 총재 후보 중 한 명이며 현재 콜롬비아대학 교수인 이토 타카토시는 일본은행의 YCC 조정이 완화적 통화정책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 또한 내년에는 일본은행의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

■ 일본 11월 산업생산, 전월비 소폭 감소.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이 원인

- 1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1% 줄었으며,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도 1.3% 감소. 이는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대외수요가 점차 약해지기 때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통화긴축 영향이 큰 편(Daiwa Securities)
-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임금상승이라고 강조. 임금이 상승하지 않으면, 소비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2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청구건수, 유로존 11월 M3 통화공급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내년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대비해야 할 5가지 위험요인 - 블룸버그

(Five Scenarios That Threaten More Strife for Global Markets)

- 내년 금융시장 관련 금리인하 등 낙관적인 시각과 함께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공존.
 - ①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공급측 가격 및 임금 상승 압력에 따른 고물가 고착화 가능성. 이는 주식과 채권가격 하락, 달러화 강세 등으로 연결
 - ②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 이는 중국 증시에 부정적이며 주요 원자재 수요는 약해질 소지 ③ 라우전쟁 심화 시 경제제재가 인도 등 러시아 무역국에도 확대될 전망. 아울러 식량 등 주요 물품에 대한 공급망 충격 유발도 가능
 - ④ 고물가 통제 실패 시 달러화 강세 지속 예상. 또한 라우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등은 신흥국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의미 ⑤ 보다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출현 시 공급망 충격으로 이어지며 고물가 및 경제활동 둔화를 초래할 우려

■ 미국 노동시장, 빅테크의 직원 해고에도 빠른 재취업으로 견조 - WSJ

(Laid Off Tech Workers Quickly Find New Jobs)

- 집리크루터(ZipRecruit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IT기업의 대규모 해고에도 불구하고 3개월내에 79% 정도가 재취업에 성공. 해고된 근로자의 37%는 1개월도 안 돼 신규 일자리를 얻었고 단지 5%만이 일자리를 찾는데 6개월 이상 소요
- 최근 일자리는 1,030만개로 연초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구직자보다 많은 상태. 기술업계에서 광범위한 해고, 신규고용 중단, 비용절감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당 분야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많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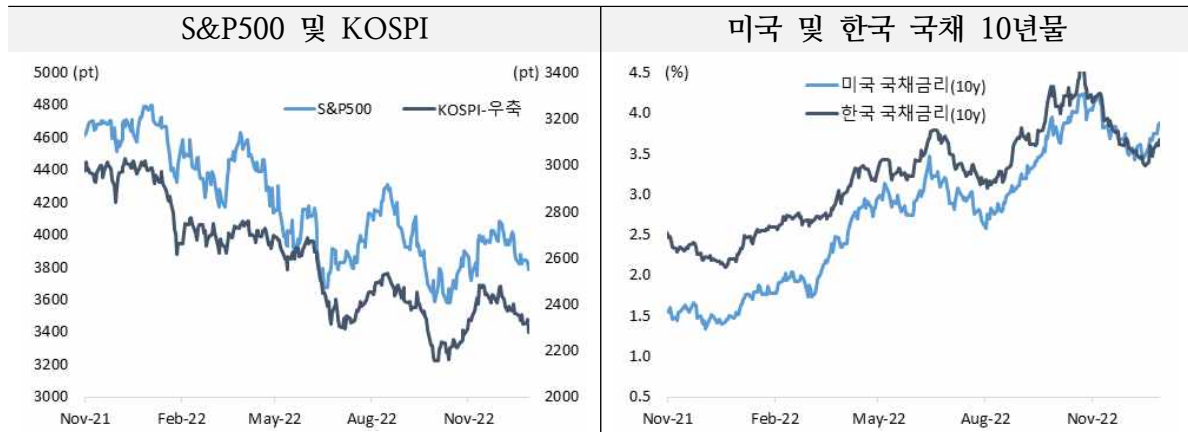
■ 중국, 경제개방 조치 등으로 내년 빠른 경기 회복 가능성 - 블룸버그

(China Economy Faces Bleak Few Months, Faster Rebound Next Year)

- 당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진행. 전문가들은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로 경제적 손실은 내년 초에 집중되며 이후 강력한 성장을 예측. 이에 '2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1%에서 6.3%로 상향(Bloomberg Economics). 또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는 글로벌 서비스부문 및 공급망 측면에서도 긍정적
- 다만 경제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는 글로벌 고물가 통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 발생 시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지닌 중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

- **미국 소매업체,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채무불이행 증가할 우려 - 블룸버그**
(Inflation-Wary Shoppers Pull Back as Goods Pile Up in Stores)
 - 전미소매업연합회에 따르면, 연말 연휴기간 중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고물가로 인한 가격부담 등으로 저소득층 소비가 줄면서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평가
 - 향후 소비자들의 구매여력 악화, 고물가 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소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 이에 여타업종 대비 부실 규모가 큰 소매업체들의 부실채권 비중(13.6%)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
- **연준, 단기지금시장 등을 통해 내년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설 전망 - Financial Times**
(Is QE returning by stealth?)
- **글로벌 채권가격 하락,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안에 기인 - 블룸버그**
(Global Bonds Slide as China Reopening Fuels Inflation Angst)
- **발트3국의 기록적 인플레이션, 내년 유럽 전역의 고물가 심화 징후일 소지 - Financial Times**
(Inflation in the Baltics: a warning for the rest of Europ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